

도체 정육율이 35.23%에서 54.45%로 개선됐다.

오늘날 중국의 상업돈 생산은 주로 잡종강세돈의 후손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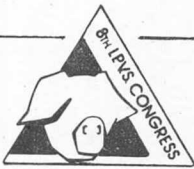
중공 양돈산업은 현대화 되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그들 가운데 불확실한 사료생산과 양돈기계 설비의 부족, 질병의 비과학적인 치료와 관계등이 있다. 이들이 중공의 돼지 생산성의 저해 요소이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중공은 미국의 생산량을

따라가려면 현재보다 3배가 많은 돼지가 필요하다.

중공은 유전력과 사료 자원이 풍부하기때문에 미래는 밝다.

중공이 외국투자를 장려해서 육종, 사양, 위생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경영관리를 적용하여 현재의 대양돈장건설과 같은 발전을 계속한다면 상업돈의 생산은 현재의 발전속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피그 인터내셔널 1984. 7월호, 15~17쪽, 번역 이일형 대리)◇



제 8 차 국제 돼지 수의학회 벨기에에서 개최

국제 돼지 수의 학회가 주최한 학술회의가 격년으로 개최되어 왔는데 금년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벨기에 겐트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상기 학술대회는 1970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후 2년씩 돌아가면서 서독, 프랑스, 미국, 유고슬라비아, 덴마크 그리고 80년엔 멕시코에서 개최된 바 있었다.

매 모임마다 세계의 학회회원과 수의사, 연구가들이 돼지 위생 문제에 있어 최선의 발전된 견해와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 8차 학술회의에서는 40개국에서 3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금년의 국제 돼지 수의 학회(IPVS) 회장인 겐트주립대학 수의학과 모어라이스 펜셀트교수는 1984년 모임은 임상분야의 돼지 전문 수의사들의 모임을 마련하는등 색다른 스케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00여명이 등록한 이번 모임은 돼지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위생관리 문제가 다루어졌다고 밝혔다.

가성광견병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이 모임에서도 이 질병에 대해서만 5번의 분과회의를 가졌으며 기타 위축성비염, 헤모피루스 폐염, 대

장균등에 대해서도 1~2회의 분과회의를 가졌다.

특히 번식능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임신진단과 분만유도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IPVS참가자들은 회의가 끝난후 벨기에 양돈 농장을 방문했는데 벨기에에는 연간 8백만두의 돼지가 도살되어 70만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해낸다.

1983년 12월 센서에 의하면 돼지사육두수는 5백 18만두로 이중 어미돼지는 6십 3만 2천 두를 차지하고 있다.

돼지두수가 1970년의 3백 8십만두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농가호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969년 82,245호에서 1982년 37,600호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69년의 33.8두에서 81년엔 136.1두로 증가했다.

번식농장수도 74년의 43,266호에서 81년에 25,954호로 줄어 총호수의 65.6%, 69.1%를 각각 차지했다.

벨기에 양돈산업의 특징중의 하나는 비록 양돈농장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어미돼지를 100두이상 갖고 있는 농장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어미돼지의 22%를 이 규모의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벨기에의 양돈산업이 더욱 전문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서부 프레미쉬 지방이 벨기에의 양돈 주산 단지인데 1970년엔 벨기에 총 돼지의 76%를 생산했었고, 서부 프레미쉬 지방에선 70년에 전체 돼지의 34

%, 82년엔 42%를 생산했다.

또하나의 특징은 돼지생산량의 3분의 1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벨기에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960년대에 평균 25kg선이었고 70년대에 36kg, 82년엔 48kg을 나타냈다. (근작 외지에서) □

미국 수돼지 전람회(NBS)에서 집중 인기

올해 미국의 국립 숫돼지 전람회(National Barrow Show)에 숫돼지의 40%가 집중이었고 이숫자는 작년보다 12%나 상승한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에 순종만을 찾던 사육가가 잡종을 원하기 때문이다. 등록된 혈통은 매년 미네소타주 오스틴(Austin)에서 열리는 전람회에 출품한 품종이어야 하고 잡종은 순종에 의해 교배된 것이어야만 한다.

지난 5월 4일 미네소타주 뉴 알롬(New Ulm) 검정소에 입식된 두수는 순종 잡종을 합해 774두(아래도표 참조)였다. 이 중 24두는 거세를 너무 늦게 했거나 질병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여겨져 도태시켰고, 37두는 너무 체중이 적게 나가 도태시켰으며 25두는 일당 증체량이

미달하여 도태시켰다. 검정소 소장 허블리(Hubly)씨는 특히 잡종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품종	구분	마릿수	평균개시체중	평균일당증체량
버크셔	크셔	31	52	.732
체스터화이트		61	56	.785
듀록		91	55	.775
햄프셔	프셔	62	55	.792
랜드레이스		30	58	.826
폴란드차이나		34	59	.852
스포티드		45	57	.806
요크셔	크셔	59	52	.737
잡종		270	58	.818
평균		683	56	.791

(근작 외지에서)

오스트리아 84년에 돼지생산고 증감

독일 농업통계에 의하면 1984년에 오스트리아는 68만두를 도축할 전망이어서 5%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오스트리아의 83년 12월 센서스에 의하면 총 돼지사육두수가 2.8%, 번식돈은 1.3%가 각각 감소한것으로 밝혀졌다.

오스트리아의 돼지두수는 1981년 12월 4백 1만두, 82년 398만 1천두, 작년 387만두로 감소해왔다.

어미돼지수는 396천두에서 386천두로 또 381천두로 비슷한 경향으로 줄어들었다.

폴란드 돼지고기 증산 강조

1983년 2/4분기에 알맞은 회복세에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1983년말에 135만톤으로 82년에 비해 11% 감소했다.

1984년 1월 돼지사육두수는 1천79만두로 3% 감소했음이 보고되었고,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한 예측자에 의하면 6%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축생산을 위해 사료재고품의 이용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폴란드 정부 정책으로 1984년초에 새로운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옛날에는 도입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수단의 적당한 효율성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